**독후감 과제**

**(빅데이터를 지배하는 통계의 힘: 통계학이 최강의 학문이다)**

전기전자통신공학과

1531061009

이강원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빅데이터 분야이다. 과거의 빅데이터는 무규칙적으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모여 있었지만,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최근에서야 데이터를 수집하는 범위부터 저장, 검색 및 분석까지 과정이 체계화되기 시작했으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고안되기 시작했다. 통계학은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패턴에 따라 숫자로 나타내고 이를 해석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숫자로 나타낸 수치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낸다. 통계학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계학과 빅데이터 분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통계학에 대해 궁금했기 때문이다. 통계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계학이 어떤 학문인지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통계학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다. 나를 포함해서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통계학 관련 용어들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통계학 관련 용어들을 하단에 정리해주어 비전공자도 어렵지 않게 통계학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통계학 관련 예시를 소개하여 통계학이 얼마나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 통계학은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올바르고 빠른 답을 제시해준다. 통계학은 모든 학문 분야를 통틀어 세계곳곳에서 인간의 삶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최선의 답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그 예로, 통계학을 활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한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미국이 대공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에 통계학자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한다.

나는 우리가 통계학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통계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의사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라면 적어도 통계의 결과를 해석하고 그것으로부터 행동 전략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통계학은 수학적인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책을 선택하는 데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책을 선택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이 책은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거나 통계학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통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통계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배워보고 싶다.